

한복의 아름다움 · 가치를 널리

전주 풍남문광장서 내달 3~6일 ‘한복문화주간’

한복패션쇼 · 강강술래 퍼포먼스 등 볼거리 다채

생활 속 한복문화를 확산시켜온 전주시가 한복의 아름다움과 멋, 가치를 만끽할 수 있는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연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전주풍남문 광장에서 '2019 한복문화주간-전주시 한복문화 활성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한복문화주간'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보다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해 개막 도시에 이어 2회 연속으로 개최도시로 선정됐다.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 생활속으로 복(服)고GO 전주!'를 슬로건으로 한 올해 한복문화주간에서는 첫날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행사내내 시민과 여행객이 한복문화를 일상문화로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전주시와 한복진흥센터가 주최하고 (사)전주패션협회가 주관하는 개막식에서는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주영화·고유정 디자이너의 궁중의상·전통한복·신한복패션쇼 △여태명 교수의 슬로건 붓글씨와 김명신 무용가의 공동 퍼포먼스 △강강술래·청어여기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참석자 전체가 함께하는 '강강술래, 한바탕 전주로 하 나되고'를 주제로 한 강강술래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이어 행사기간 내내 풍남문 광장에는 궁중의상과 전통의상, 신한복 등을 전시하고, 시민과 여행객이 전통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상설체험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삼꽃잎 주머니 만들기 △매듭 소품 △한복을 이용한 페인팅 △한지 한복 인형 접기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한복 포토존에서 전시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증하면 전

주한복마을 경기전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한복에 대해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한복 퀴즈대회도 현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시는 올해 한복문화주간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3일과 5일 각각 유치원생부터 고령층까지 전 세대가 참여하는 강강술래 경연대회를 펼치고, 각각의 우승팀에게는 개막식과 폐막식 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끝으로 5일 오후 6시로 예정된 폐막식에서는 △박순자 디자이너의 혼례·전통한복패션쇼 △시민참여 한복패션쇼 △전주패션협회 회원들의 시대별 한복변천을 주제로 16세기 한복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신한복 소개 △한복을 입고 진행되는 국악·전통춤 공연도 예정돼있다.

이밖에 올해 한복문화주간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주시 한복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상을 되짚어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주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한복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주시 한복문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

제로 한 세미나도 마련된다.

최경은 (사)전주패션협회장은 "2018년 한복주간 개막도시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도시로 선정돼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전주가 한복을 매체로 한지패션의 메카로서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전주만의 차별화된 한복문화콘텐츠 개발에 전주시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권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인 한복이 시민의 일상 속 의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한복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해나가는 등 아름다운 한복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과 함께 실현해가겠다"면서 "한복문화주간에만 펼치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확산 노력으로 시민에게는 친근하게, 세계인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한복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복문화주간' 행사는 올해의 개막도시로 선정된 부산을 비롯해 수원, 양평, 김포, 대전, 전주, 영남, 광주, 양산, 대구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린다./송효철 기자



지난 17일 전주 라루체에서 '2019년 1차 대한병원정보협회 전북지회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도내 병원 IT부서 '한자리에'

병원정보협 전북지회 학술세미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을 비롯한 전북도내 병원 IT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병원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IT의료정보기술을 논의했다.

대한병원정보협회 전북지회(회장 전북대병원 전산정보과 김삼경 과장)는 지난 17일 전주 라루체에서 '2019년 1차 대한병원정보협회 전북지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병원정보협회는 병원 IT부서에 근무하면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모임으로, 전북지회의 경우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도내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지회가 주최한 이번 제1회 학술세미나는 병원 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IT 환경에 효율적

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최신 기술동향 및 정보공유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대병원에서 진행한 EMR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경과 소개에 이어 환자용 모바일 앱 구축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병원에서는 '디지털 치료제' 기술동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삼경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병원 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IT 환경에 효율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최신 의료정보기술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꾸준히 이어가 병원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는 전주농협 신성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완산구는 현재 19개소 2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설치된 평화2동 무인민원발급기는 7시에서 23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365일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교육부증명서, 국세관련 증명서 등 75종이며 민원서류를 청구보다 50% 감면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도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시스템, 점자키보드, 화면 확대, 이어폰 사용 가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함께하는 인생식탁 참가자 모집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 이하 재단)이 인문주간을 맞아 9~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함께하는 인생식탁' 참가자를 모집한다.

'함께하는 인생식탁'은 다양하고 의미 있는 공간에 100인의 인생식탁이 차려지고, 지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나, 삶의 경험을 나누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문행사다.

재단은 올해 첫 인생식탁을 오는 28일 전주역 첫마중길에서, 2차는 오는 10월 26일 순창방랑살롱과 삼례문화예술회관에서 정오에 진행할 예정이다.

1차에 대한 신청기간은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2차에 대한 신청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개인 및 그룹(최대 6명)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행사는 식탁에 모여 점심 한 끼를 나누며 다양한 인문 주제를 두고 소통하는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식사 후 함께 나누며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jbcr.or.kr)와 인생나눔교실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arko20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할머니가 전해주는 가공농기구의 지혜

18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린 '할머니가 전해주는 가공농기구의 지혜' 특별전시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절구 찹기, 매통 갈기, 국수를 이해하기, 떡살 도장찍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 전시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1일간 열린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주 여인숙 방화치사 60대 피의자 구속기소

검찰 "피고인 범행 부인하나 제반 증거에 비춰 범행 인정"

70·80대 투숙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북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60대 피의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1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6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

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폐지와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에도 여관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 "여인숙 인근에도 간 적이 없다"면서 혐

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방화 범행은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제반 증거에 비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지적장애 앓는 20대 여성 살해 · 유기 일당 검거

군산경찰, 20대 등 4명에 구속영장 신청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모(2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체유기를 도운 범행을 도운 B모(24)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전북 익산시내 한 원룸에서 함께 동거하던 C모(20)씨를 주먹과 발로 무

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부터 A씨 등은 C모씨를 원룸에 데려와 동거를 시작했고,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 15일 군산에서 발생한 D모(31)씨의 남

치·감금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D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C씨가 감금된 뒤, 살해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이어 경찰은 특정된 피의자 A씨 등이 익산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 이날 4명을 긴급체포했다. 또 이들 뒤인 17일 대전에 숨어있던 피의자 1명도 붙잡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수법과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전주시가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키로 했다.

시는 1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군부대·경찰·소방서·교육계·병무청·교도소 등 통합방위 관련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의에서는 지난 상반기 실시된 읍지대극훈련 등 통합방위훈련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2019년 안전한 국훈련 준비상황 보고(시민안전담당관) △테러대비 대응훈련 동영상 상영(완산경찰서) △기타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논의 등이 진행됐다.

참석한 위원들은 특히 향후 통합방위태세의 발전방안과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흔들림 없는 지역안보태세를 갖추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했다.

영문 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요즘처럼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시점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 통합방위 능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예상치 못한 각종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민원탁회의 BEST 시민참여상 수상자 일일명예시장 위촉

전주시는 18일 허지현 씨(38, 완산동)를 제12대 일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

남부시장 청년물에서 가게(문방구)를 운영중인 허지현 씨는 지난 6월 열린 '제8회 전주시민 원탁회의'에서 BEST 시민 참여상'을 수상했다.

허지현 씨는 본업 이외에도 동물복지 시민단체 '해피나비 프렌즈'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허지현 일일 명예시장은 첫 업무로 제8회 시민원탁회의 주제였던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과를 방문해 전주시 동물복지 기본계획

을 청취하고, 지난 8월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를 방문했다.

그는 또 청년 상상 놀이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호동굴 허수아비 축제가 진행중인 전주시 양묘장과 전주형 사회주택 청춘101, 전주동물원을 차례로 방문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허 일일 명예시장은 "비록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소 관심 있었던 시정의 부분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직원과 소통" 전주지법원장 '1일 카페 바리스타' 변신

전주지방법원에 직원·민원인들과 소통하기 위한 '1일 카페'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법원 내 가인마루 앞에서 법원 가족을 위한 1일 카페'가 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카페 주인으로 변신한 한승 전주지법원장을 비롯해 구창모 수석부장관과 김형호 사무국장 등도 일일 바리스타로 나섰다.

앞치마를 두른 한 법원장 등은 점심을 마친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직접 만든 커피와 차를 대접했다.

이날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카페가 운영됐다. 1시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법관들과 직원, 공익 요원, 청소년 영역 직원을 비롯해 민원인 등 100여 명에 달하는 손님이 찾았다.

아이스커피를 받은 한 직원은 "법원



장님이 주신 커피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직원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면서 "비록 작은 장소이지만 커피 한 잔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화 공보관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자리였다"라면서 "오늘의 긍정 에너지가 신속하고 적절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